

국민연금 수급비율 화순 전국 2위·장성 3위

전남 70세 이상 40%…타 지역보다 초고령화 진입 빨라

전체 여성수급자 전년비 8.8% ↑…80세 이상 5년새 6.4배

화순과 장성의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80세 이상 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수명이 긴 여성의 수급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대우)가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수급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전국대비 65세 이상 수급자비율이 가장 높은 순창에(48.7%) 이어 화순군 48.27%, 장성군 47.12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전남지역의 인구대비 수급자비율이 매우 높았다.

7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금 수급률이 40%에 이르렀다. 이는 농촌지역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초고령화 진입이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의 수급자수가 23만4000명이며 전북이 19만9000명, 광주가 10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동구가 48.7%로 제일 높았고, 경북 청도군과 화순군이 48.3%로 그 뒤를 이었다.

농촌지역 여성 인구 비율이 커지면서 전남의 경우 여성수급권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 특히 화순지역

이 47.9%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순창 47.7%, 나주 4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앞의 65세 이상 수급자비율이 높았던 지역과 유사하며, 고령화된 수급자가 많을수록 여성 수급자의 비율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도 170만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8%(14만명) 늘었다.

특히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대비 10%(9만9000명) 증가한 109만명으로,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이며 이 중 39.8%인 37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61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배인 반면 61세 이상 수급자 증가율은 1.5배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인구는 700만명이며 이 중 38.0%인 26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배였으나, 65세 이상 수급자 증가율은 더 높은 1.7배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5년 전(2만8000명) 대비 6.4배나 증가한 18만명이며 이 중 67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로 고령 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 총 지급액 17조700억원 중 82.3%인 14조5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되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1%(1조7200억원), 2.0%(3400억원), 일시금이 5.6%(9600억원)을 차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4.64 (-2.34)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코스닥 614.68 (+1.05)	↑ 환율 (USD) 1117.20원 (+3.00)

“고용 보장 없는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

사내협력사 노사 성명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사 노사는 30일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수급사 대표자협의회,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연합지부는 이날 오전 광산구의회에서 진행한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력사는 “사내 협력사들의 모든 일감은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매각은 우리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일수 밖에 없다”며 “지역경제와 사내 협력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금호타이어의 고용보장 없는 매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유일한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의 불공정한 매각은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는 것이며, 호남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힘 모아 제2의 광산업 부흥”

광산업진흥회 정기총회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3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2층 대강당에서 300여개 회원사와 광산업육성 지원기관 및 광산업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정기총회 갖고 제2의 광산업 육성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추진 성과보고에 이어 2016년도 법인수입·지출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등을 의결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올해 주요사업계획은 ▲회원사 맞춤형 서비스 확대 지원 해외마케팅 토털 솔루션 제공 ▲유사사업간 연계를 통한 양질의 바이어 매칭 ▲유망해외시장 개척(해외마케팅센터 10개소 운영) 확대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혁신 프로젝트 인력양성 사업 ▲국내외 LED 보급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민간투자사업 수임 확대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통한 전국 회원사 지원 ▲회원사 370여개사로 확대 등이다. 또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2의 광산업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

■ 세 일 글

“공동도급 활성화…건설업계 선도”

최 봉 호 광주·전남기계설비건설협회장

“건설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추대된 최봉호(59) 비봉기업(주) 대표는 “회원을 섬기는 협회, 분리발주제도 정착 등 업계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 회원으로부터 신뢰 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선임 회장은 “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장 면담을 통한 홍보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내 대학에 설비관련학과를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도 출신인 최 회장은 목포 영흥고와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환기업과 금광기업에서 근무했으며 비봉기업(주)를 창립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감사를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남도 전통시장 먹거리 투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이 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를 찾고 이를 홍보하고자 ‘남도 전통시장 먹거리 투어’에 나선다.

30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호남지역본부, 광주상인연합회, 전남상인연합회는 공동으로 매월 2~3차례 전통시장 식당을 방문한다.

김진형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으나,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스토리(추억)와 상품, 문화 등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내달 3일 개청

광산구 외곽·영광 주민 세무 불편 개선

광주 광산구 외곽지역과 전남 영광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다음달 3일 개청한다. 따라서 원거리납세자들의 세무민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서장 노대만)는 다음달 3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맞은 편에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청사를 마련하고 납세서비스를 시작한다.

관할구역은 광산구 평동·삼도동·본량동·여룡동과 전남 영광군 전체다. 관할납세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광산구 일부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와 영광군 등 2만6000여 명이다. 광산지서는 1층 민원실, 2층 세원관리팀, 3층은 신고창고로 운영된다. 근무 인원은 지서장 1명, 납세자보호실 4명, 세원관리팀 12명 등 17명이다.

그동안 서광주세무서는 관할구역이 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에 달한데다 산업단지 조성과 도심 개발로 세정수요가 폭증해 고품격의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특히 광주 광산구 외곽지역과 영광군 납세자들은 원거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광주세무서 관할구역 분할과 광산세무서 개서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산세무서 대신 광산지서 신설을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국세청 산하에는 10여년 동안 세무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당초 기대했던 세무서 신설이 아닌 지서로 결정돼 아쉬움이 남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세정지원과 복지세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며 “납세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 · 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 대 · 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